



노랗게 익어가는 감귤의 계절 11일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한 감귤 밭에서 농민들이 극조생 감귤수확 작업으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상국기자

포스트코로나 대응 '송곳 감사' 주목

■ 제11대 제주도의회 하반기 첫 행정사무감사
 갈등 현안 점검·내년 예산편성 전초전 관심
 “두루뭉술 지적이 아닌 날카로운 견제·감시를”

임기 중반을 넘긴 원희룡 제주도정과 이석문 교육행정을 종합 점검하는 제 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하반기 첫 행정사무감사가 본격 개시된다.
 13일 개최하는 제주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회기 중 이른바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행정사무감사는 14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다.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지역 산업과 민생 경제 전반이 위축된 가운데 열리는 첫 행감인 만큼 행정의 '코로나19 대응 능력'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간보조금 삭감 등 세출구조조정 논란 속 정책대응 및 예산투입은 적절했는지 여부와 코로나19로 미추진된 사업들에 대한 점검과 함께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제적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제시, 모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 '끝장 토론'을 앞두고 있는 제2공항 건설 문제를 비롯한 각종 갈등 현안과 공무원 조직, 출자·출연기관 예산 지원, 행정체제개편, 대중교통·주차·폐기물·하수정책, 태풍·장마 등 자연재해에 따른 1차산업 문제에 대한 '송곳 감사'가 예상된다. 도민설명회 개최로 수면위로 떠오른 (가칭)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문제를 포함해

코로나19 국면 극복 및 대전환시기 제주미래를 위한 '제주형 뉴딜' 계획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아무리 코로나19 상황이지만 편성된 예산을 삭감한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서 “예산 삭감이 적절했는지 대한 판단과 불요불급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도 살펴 봐야한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편성 문제도 관전포인트다. 제주도의회가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 재정을 지속 요구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고강도 세출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예산감들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 11월 본격 예산 심사를 앞두고 '전초전'이 벌어질지 주목된다.
 교육분야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비롯해 이 교육감의 공약 추진 여부와 원격수업 장기화에 따른 학습격차 및 기초학력 저하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도지사의 대권도전 행보에 따른 도정 소홀 우려 속 재량·두루뭉술한 지적이 아닌 행정 전반에 대한 예리하고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수행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은 “중요한 시기인만큼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도정의 잘못된 정책을 견제,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행감 이후 각 상임위원회별 회의에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한 후 29일 폐회한다. 9월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된 '지역화폐 조례안' 처리 여부와 16개월째 표류하고 있는 '시설공단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 및 처리 여부가 최대 관건이다. 오은지기자

공공시설 오늘부터 제한적 운영 재개

경로당 등은 19일부터 개방 마스크 미착용 계도기간은 내달 12일까지 한달간 연장 정부 거리두기 1단계 맞춰 제주형 행정조치 탄력 운영
 해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스포츠 행사의 경우도 최대 30%까지 관중 입장을 허용하며 주최자와 이용자는 행사 특성에 맞는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국·공립 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은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운영을 재개하며, 고위험시설 및 사우나·목욕탕 등에 대한 집중 방역관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단, 집합금지가 적용중인 직접판매 홍보관과 고위험시설 11종 및 목욕탕·사우나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및 불이의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집합제한은 유지할 방침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8월 열린 제 14차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 회의에서 공공시설 운영방안을 검토한 끝에 밀폐·밀집·밀접도가 높은 실내체육시설과 경로당 등 사회 복지시설을 제외하고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 등 시설은 12일부터 생활방역위원회에서 승인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은 추석연휴 특별방역 위험관리기간인 18일까지 사전 준비기간을 거쳐 19일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제주 중등교사 163명 임용계획 공고

8월 사전예고보다 44명 늘어 보다 44명이 늘어난 규모다.
 또한 1차 시험에 한해 사립 6개 법인 8개 학교에서 국어 등 12개 교과 18명, 영양 1명 선발을 위탁받아 1차 시험은 공립과 같이 시행하고 2차 시험 이후는 해당법인 자체계획에 의해 시행된다.
 응시원서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다음달 21일 제1차 시험이 시행, 12월 29일 1차 시험 합격자를 발표한다. 이어 제2차 시험은 2021년 1월 20일, 1월 26일~1월 27일에 시행되며 최종 합격자는 같은해 2월 10일에 발표한다. 송은범기자 seb119@ihalla.com

제주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2일부터 접수

현장접수는 19-23일 진행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접수 신청이 12일부터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접수를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8-9월 사이에 소득·매출이 감소한 일정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상으로 한다. 신청기간은 이달 23일까지이다.
 온라인(covid19.ei.go.kr)으로 신청할 경우 PC에서만 가능하며, 모바일 신청은 불가하다.
 방문신청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지 신분증, 증빙서류를 지참해 고용센터(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지하1층)를 방문하면 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한번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신청인 본인 계좌로 150만원이 일괄 지급된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 중복수급 불가하다. 이태유기자

www.booyoungyouth.com

Jeju Booyoung Youth Center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

“ 청소년들의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곳 ”
 아름다운 자연속에 추억이 머무는 곳

최고보다 최선을, 성공보다 행복을 꿈꾸는 청소년을 위한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의 청소년지도자들은 인성, 진로, 놀이, 봉사, 리더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수련활동에 참여, 숙박할 수 있도록 깨끗하고 편리한 시설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들의 행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아름다운 환경의 성 제주에서 청소년들이 미래 지향적 사고와 꿈을 키우고, 몸과 마음이 행복해 질 수 있는 수련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전과 용기 그리고 희망을 키우는 터전!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상로17번길 52-17(중문동)
 T. 064-760-5700 F. 064-760-5757